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하자

상생의 기업문화 만들자

노사 화합·협력이 곧 경쟁력

기업은 국가, 가계(개인)와 함께 경제체계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다.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중요성은 국가와 가계의 중간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에겐 재정운용 기금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고, 가계에겐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득원 역할을 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무엇보다도 허리 역할을 맡고있는 기업이 살아야 한다.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사는 물론 기업주와 직원간,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파업·분규 접고 신뢰로 기업발전 모색 할때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생산성 향상에 도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에 공장을 둔 GS칼텍스다. GS칼텍스는 지난 2005년 업계 최초로 '노사화합 부문 규 선언'을 한후 올해로 3년째 노사가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GS칼텍스 노조는 지난달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동결을 사측에 제의해 눈길을 끌었다.

반을 조성할 것 ▲노사 양측은 노사협의회를 근간으로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조성할 것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기업의 상생문화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도 싹트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1일 광양지역 12개사를 포함해 20개 협력업체와 '테크노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대된다. 직원만족 경영이 곧 고객만족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직원들의 기 살리기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부터 '굿모닝 아침먹기 캠페인'을 시작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생일날에는 점장이 직접 축하 카드를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전남 상장기업 22개사 주가대비 수익·배당을 하락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의 주가 대비 수익과 배당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2개사의 지난해 평균 주가수익비율(PE)은 2005년에 비해 1.9배 상승한 14.7배로 집계됐다.

식 100개로 구성) 지수와 코스피200 지수의 지난해 평균 PER는 각각 11.9배와 12.8배로 전년 대비 0.5배와 0.8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PER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실적이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 상장사들의 배당수익률(주가를 주당 배당금으로 나눔)도 지난해 1.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1개 회사의 주당 평균 배당금도 2005년 211원에서 지난해 158원으로 줄었다.

대후 임시·일용직 10년새 3배 늘어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 중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가 지난 10년 새 3배를 넘어섰으며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추세가 나타났다.

보성건설 임원 인사

임진택씨, 부회장 승진

김기우씨, 사장 취임



임진택 부회장 <김기우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02년 전남도 건설국장을 퇴임한 후 2005년 보성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공직생활 재임중 건설행정 유공으로 근정포장과 녹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보성건설은 최근 김기우(주)삼안건설기술공사 대표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임진택 사장을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4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형기우 동양화학 대표

“올해 광바이오 전문업체 발돋움”

매출액 10% R&D 투자 의약품 센서 신기술 개발



화학제품·특수가스 제조업체인(주)동양화학(영암군 신북면 갈곡리)은 설립초기부터 매년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R&D)에 투자,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을 출시한 공로로 지난 27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는 '4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4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수상자인 형기우 대표, 박준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T 광주·전남지사 농산물 수출 컨설팅

미국산 쇠고기 검역협의 내일 시작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약 두 달 만에 쇠고기 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틀 동안 농림부 과천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운주)가 지난 26일 곡성배 영농조합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출컨설팅을 추진, 지역 수출농산물 경쟁력 높이기 위해 나섰다. 올해에는 국내 및 해외장사를 초빙한 현장발차형 컨설팅 19회, 수출농업 마인드확산을 위한 컨설팅 1회, 국내 선진수출단지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3회 등 총 23회를 마련한다.

홍길동축제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행사일정표. Includes festival details, schedule table for 5.4, 5.5, and 5.6, and lists of activities like '홍길동축제 체험행사' and '홍길동축제 부대행사'.